

제주 '상급종합병원' 청신호 켜졌다

서울권역에 묶여 대형병원과 경쟁해 지정 ‘한계’
심평원 용역… “제주, 인구 충족해 독립권역으로”
정부 의지 관건 속 평가 기준 충족 여부도 변수로

제주지역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종병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 운영에서 제주를 서울 진료권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주는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어 도내 의료기관이 상종병원으로 지정되면 같은 권역의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과 경쟁을 펼쳐야 해 사실상 지정 가능성이 없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뢰한 '상중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에서 용역진은 현재 11개인 진료권역을 14개로 확대 개편하고 제주를 서늘 진료권역에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용역진은 "분리하는 최소 인구 수를 만족하기 때문에 독

립된 진료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료권역은 상종병원 지정 때 필요한 이른바 의료기관별 평가 그룹을 말한다.

정부는 3년마다 전국 17개 시도
를 10~11개 진료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치료 실적과 의료 인프라
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종병원으
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가 '서울권'에 묶여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들과 경쟁하는 구조이다보니 지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로 제주도는 진료권역
조정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제주 국회의원 3명은 전국 각 시도
별로 최소 1곳씩 상중병원을 지정
하거나 현행 요건을 완화하는 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상종병원 제주 지정을 공약한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5기(2024~2026년) 상종병원 지정 평가가 있었던 지난 2023년 말에도 제주는 여전히 서울 권역에 묶여 당시 첫 도전장을 내민 제주대병원은 최종 탈락했다. 의료권역은 '고시'로 결정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직권으로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진료권역 분리 움직임은 5기 지정이 끝난 뒤에야 가시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상종병원 지정 제도 재검토 영역을 벌여 현실에 부합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역 1년 여만에 제주를 독립 권역으로 분리해야한다는 결과가 도출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용역 결과가 반드시 정부 정책에 반영돼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도내 의료계의 또다른 숙원인 감
염병전문병원도 이미 지난 2016년

정부 용역에서 제주에 설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제주 상종병원 지정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진료 구역 분리가 최종 결정된다.

권역 분리와 별도로 상종병원 지정 기준 충족 여부도 변수다. 4기 평가 때 적용된 기준에 따르더라도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반드시 34% 이상 유지해야 상종병원 지정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제주대병원은 지난 2023년 상종병원에 도전할 당시 이 기준을 겨우 충족했다.

용역진은 중증환자 비중 기준에 대해서 지금까지 34% 이상이 돼야 응모할 수 있게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중증환자 비중 34~50%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가점을 주던 것을 34~70% 범위로 확대하는 등 상대평가 기준은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아우, 예뻐라”… 만개한 수국에 흠뻑 25일 서귀포시 성산을 혼인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만개한 수국을 감상하며 제주 여름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25일 제주시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제주도 제공

도, 어제 사라봉체육관서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
“영웅들이 지킨 나라, 그 뜻 이어가겠다”

해병대 3·4기 참전용사
AI로 복원해 영상 상영

제주특별자치도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한 해병대 3·4기 참전 용사들의 모션 영상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25일 오전 제주시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해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도민과 함께 되새겼다.

이런 기념식은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다. 김애숙 제주도 정부부지사, 송치선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도지부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 유족,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이날 극단 오이가 제주 청년의
참전과 그 후손의 기억을 잇는 내
容을 연극 형식으로 선보이며 세대
간 감사의 마음과 평화의 의미를

전달했다. 기념 영상 '제주의 바람'은 한국전쟁 속 제주 청년들의 헌신을 조명하며 울림을 전했다. 제주도립 제주합창단은 해병대 군악대 반주에 맞춰 '전우야 잘 자라' 등을 부르며 음악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나눴다.

행사장 한편에는 ‘기억에서 미래로, 평화를 잇다’를 주제로 해병대 3·4기 참전용사들의 흑백사진을 모션 영상으로 복원한 콘텐츠가 3대의 모니터를 통해 순환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월도 꾸몄다. 고령 유공자를 위한 부견소 간이진료소와 건강 상담 부스 등도 운영됐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제주는 제1훈련소, 해병대 3·4기 참전, 후방 연대 등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지역”이라며 “영웅들이 지킨 나라, 제주가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장마철 침수 대비 도로 정비

제주특별자치도는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도로 배수시설에 대한 집중 정비에 착수한다.

제주도는 제주시 54곳, 서귀포시 22곳 등 상습 침수지역 76개소를 포함, 침수 흔적지, 지하 주차장 밀집 지역, 언론 지적 현장 등을 대상

으로 빗돌받이, 맨홀, 우수관로 등 배수시설 정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관리부서, 하수도관리부서, 행정사가 협업해 진행되는 이번 정비는 빗돌받이 방지 현장과 지하시설 밀집 지역 주변도 포함했으며 퇴적물 제거와 배수 저해 요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오영훈 지사 취임 3주년 언론 인터뷰... 2면 / 범죄피해자 보호요청 하루 1.2건꼴... 4면

놀멍 보멍 먹으멍 지꺼진 푸파페

푸파페 제주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제주국제박람회

07.11(금)-1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사전등록하기

푸 파페 제주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사)제주6차산업협회

미디어파트너

제주의소리

제주CBS

기획·운영 SUMMI FAIRS

(프로그램)

푸드파밍페어

01

전시판매

청정제주 건강 먹거리 특별할인 및 시식 / 도내·외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경영체 기관전시 및 홍보 / 푸드테크관 / 청년농부관 / 전통주 특별관

02

체험 프로그램 "온 가족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메밀폴장 / 곤충디오라마 만들기 / 곤충생물전시 / 화장품 만들기 / 농산물 키링 만들기
평균틸 작품 만들기 / 케이크·푸딩·인절마·요거트·빙떡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축구드론체험 / 휴먼로봇 코딩댄스

03

주요행사

· 농촌융복합산업 국제포럼 · 수출상담회

04

부대 프로그램

· '폭삭속았수다' 제주 전통음식 무료시식·시음 · 제주감귤·한우 뷔스라 등 무료 시식
· '폭삭속았수다' 포토존 · 제주산 화훼 무료 포장 체험
· '선을 그림할랑' 갤러리 · 사전등록 이벤트 / 다양한 경품 이벤트
· 전통주 생산자 도슨트, 무료 시음 · 푸파페 인생네컷 (무료)